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06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23일 (음력 4월 19일) 금요일

평동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367-3000

공직사회 명퇴 회오리

'더 내고 덜 받는' 연금법 추진 따라 … 광주·전남 예년의 20배

교원 공동화 우려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명퇴 여부'를 저울질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특히 21일부터 시작된 광주·전남 교육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에는 예년에 비해 20배 이상 몰릴 것으로 관측돼 교원 공동화도 우려된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선별 수용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고 수천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명퇴 신청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며, 명퇴 신청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전남지역 시·군의 경우 대부분 5월 현재 명퇴 신청자가 지난 1년간의 숫자를 넘어선 상태이며 본격 신청 시기인 6월에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1명뿐이었으나 올들어 5월 현재 무려 18명으로 늘었고, 영암은 2명에서 8명으로 4배나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올 8월말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 수요조사에는 초등 282명, 중등 107명 등 모두 389명의 교원이 희망했다. 지난 2월 말에도 150명이 명퇴를 신청해 희망 교원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만 539명이 교단을 떠나게 된다. 이는 지난 2006년 20명과 비교하면 무려 27배에 가까운 숫자다.

공직사회 명퇴 바람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자 법 개정 전에 퇴직해야 이익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2011년까지 보험료를 26.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뀌고, 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퇴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퇴직자에게 지급해야할 명퇴 수당(본봉 반액의 81%×잔여 월수) 지급 등 예산 문제 때문에 명퇴 신청을 모두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래 근무한 상위 직급자 순으로 올 2월 수준(150여명)에서 선별 수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선별 수용해도 광주에서만 연간 300여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나게됨에 따라 교원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1일부터 올해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4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 광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및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정후식·채희종·정상필 기자 who@

호남예술제 "제 솜씨 어때요?" 22일 금호패밀리랜드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53회 호남예술제 초등부 미술 부문 참가자들이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4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했으며 23일에는 중·고등부 대회가 열린다. ▶화보 14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모든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국회 통과 주말부터 시행

광주과기원법·성폭력범 전자장치 부착법도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는 것을 비롯 단계적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농축산물이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던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법률안'도 22일 국회를 최종 통과해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 개설 작업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5·7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 공포시,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올 12월22일부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었으나 향후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패스트푸드점 등), 집단 급식소(학교·병원 등 구내식당)까지 전면 확대된다.

또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쌀은 올 6월22일부터, 김치류는 올 12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각각 의무화된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도 지금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만이 가졌으나 유통 전단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단속권을 가져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학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과기원법 개정안도 이날 170명 참석 의원 가운데 16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가 폭등

배럴 당 134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30달러를 넘어 134달러까지 돌파하는 폭등세를 나타내면서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11면〉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개장 전 전자거래에서 사상 처음으로 배럴 당 130달러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정규 거래와 이어진 시간외 전자거래에서 잇따라 133달러와 134달러를 돌파하는 초강세를 나타냈다.

WTI는 시간 외 전자거래에서 배럴 당 134.1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종기기준으로도 전날 종가에 비해 4.19달러 오른 배럴 당 133.17달러를 기록 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

쇠고기 파문 사과 … FTA 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87일만인 22일 쇠고기 파문 등과 관련, "정부가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3·5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으로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축산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데 대해 당혹스러웠다"며 "무엇보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 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 아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했으며 차제에 식품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인데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실기대회

'중고등부' 오늘 11시~16시 금호패밀리랜드 동물원

우일건설 창립55년 역사의 자랑
남부대학교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